부처님이 승만 부인에게 수기 내리다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④ 수기를 내리다

부처님이 대중 가운데서 곧 수기(授記)를 주셨다. "그대는 여래의 진실한 공덕을 찬탄하였으니 그 공덕으로 한량없는 아승지겁 동안에 마땅히 천상과 인간에서 자유로운 왕이 될 것이다. 태어나는 곳 어디에서나 항상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며, 내 앞에서 찬탄하기를 지금과 같이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아승지 부처님을 공양하기를 2만 아승지겁 동안을 하여 마땅히 보광여래, 응공, 정변지가 될 것이니라. 그 부처님 나라에는 나쁜 과보를 받는 일이 없으며, 늙고, 병들고, 쇠해지는 괴로움이 없다. 또한 좋지 못한 악업의 이름마저 없느니라. 그 나라의 중생들은 몸과 힘과 수명과 다섯 가지 욕락이 모두 갖추어지고 모든 것이 다 즐겁기만 하여 타화자재천의 천상세계보다 나을 것이다. 그 세계의 중생들은 순수하여 대승에서 한결같이 온갖 선근을 닦아 익힌 이들만이 모여 사는 곳이니라."

승만 부인이 수기(授記)를 받았을 때 한량없는 중생들과 천상의 사람들이 그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하였다. 세존께서 모두에게 왕생하게 될 것이라고 수기하였다.

부처님이 승만 부인에게 수기를 내리고 있는 장면이다. 수기(授記)란 범어 'Vyakarana'를 번역한 말로 불법을 수행하는 이에게 부처님이 미래 어느 때에 부처가 될 것이라고 보장해주는 말, 곧 예언을 해 주는 것을 수기라 한다. 수기의 본래의 뜻은 교리 해설에 대한 분석이나 문답방식으로 전하는 교리해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경전을 구분하여 말할 때 12부경 혹은 9부경이 있는데 수기가 그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다가 나중에 뜻이 변하여 사후에 태어날 곳을 예언하는 말로 쓰이다가 후대에 와서는 미래세에 성불한 뒤 얻을 명호와 국토 이름 등을 밝혀주는 것을 '수기를 준다' 고 하였다. 〈장아함경〉에 포함된 〈사니사경(闍尼沙經)〉이라는 경에는 부처님이 가가라(伽伽羅) 대신이 죽은 뒤 천상에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또 석가모니부처님도 과거세에 연등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았다고 하며 미륵 부처님도 석가모니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아승지는 대수(代數)로 쓰이는 용어로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화엄경〉에 124개의 대수 용어가 설해져 있다. 겁(劫)이란 말은 가장 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인데 찰나(刹那)와 상대되는 말이다. 부처님을 찬탄한 공덕으로 아승지겁을 인간과 천상의 왕이 되었다가 한량없는 부처님을 공양하기를 2만 아승지겁 동안 하여 보광여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준 내용이다. 고도의 상징성을 띠고 있는 이야기로 씨앗 하나가 수많은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 그 양(量)이 점점 증가하여 무한대로 이어지듯이 작은 인연에서 시작하여 성불을 기약하는 큰 인연이 오게 되는 미묘한 이치를 설하고 있다.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은 욕계의 가장 높은 천상세계이다. 타화자재란 남의 것을 마음대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쾌락을 누린다는 뜻이다. 변화가 자재하여 온갖 즐거움을 마음대로 누리는 천상이라 한다. 생각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승만 부인이 성불할 때 보광여래의 세계에 가서 태어나기를 원한 중생들과 천상 사람에게도 왕생을 보장해 주는 수기를 아울러 주었다. 수기를 받으면 장차 부처님 일을 하게 된다.

〈증일아함경〉에 보면 부처님께서도 당신이 해야 할 일이 5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 첫째는 '법륜을 굴리는 일' 이다. 법을 설해서 중생을 깨우치는 것이요. 둘째는 '부모를 제도하는 일' 이다. 부처님은 성불 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도리천에 올라가 법을 설해 어머니를 교화하셨다. 우리나라 사찰에서도 천도재를 지내며 부모나 조상을 천도한다. 세 번째 일은 '믿음의 땅에 서지 못한 사람을 믿음의 땅 위에 서도록 하는 일' 이라 했다. 진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겠다는 뜻이다. 넷째는 '보살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보살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 이다. 대승불교는 보살 정신을 강조한다. 보살은 불교에서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다. 다섯째는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수기를 주는 일이다. 이상의 다섯 가지가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였다. 〈반야불교연구원장〉

'관음보살'…보살도 실천과 중생 구호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㉗ 관음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하신 위신력과 중생구제의 원력을 증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은 당연히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문품' 에는 중생의 고난을 구원하려는 관세음보살님의 의지와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경에서 설하기를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한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을 모두 위험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일념으로 부를 때마다 33응신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 중생들의 위난과 두려움을 모두 다 해결해 주는 구원의 보살이기에 관세음보살에 대한 신앙은 오늘날까지도 날로 발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특히 〈법화경〉의 '보문품' 은 관세음보살 신앙의 결정적인 전거(典據)입니다. '보문품' 때문에 관세음보살의 신행이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된 것입니다.

'보문품' 에서 무진의보살이 부처님께 관세음보살이 '관세음' 이라 이름 하게 된 연유를 물을 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남자여. 만약 헤아릴 수 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있어 모든 괴로움과 뇌로움을 받을지라도, 이 관세음보살을 듣고 한마음으로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 때에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 풀리어 벗어남을 얻게 하느니라. (중략) 나찰 귀신의 나라에 빠져서 떨어지게 될지라도, 그 가운데에 만약 이에 한 사람에 이를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으면,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나찰의 어려움에서 풀리어 벗어남을 얻느니라. 이러한 인연으로써 이름을 관세음이라고 하느니라." 경에서의 말씀과 같이 관세음보살은 중생을 구제하는 구세자로서의 위력을 가진 대보살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또한 〈화엄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을 대비행의 실천자, 즉 구원자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에는 〈60권 화엄경〉과 〈80권 화엄경〉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중 〈80권화엄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이 보살도를 실천하면서 중생을 구호하는 신앙의 대상 즉 귀의처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80권 화엄경〉에서는 이르기를, 관자재보살이 선재동자에게 말하였다.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미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내었도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대비행 해탈문을 이미 성취하였노라. 선남자여, 나는 이 보살의 크게 가엾이 여기는 행의 문으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교화하여 끊이지 아니 하노라. 선남자여, 나는 이 크게 가엾이 여기는 행의 문에 머물렀으므로 모든 여래의 처소에 항상 있으며 모든 중생의 앞에 항상 나타나서 보시로써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하고, 사랑하는 말로써 하기도 하고, 이롭게 하는 행으로써 하기도 하고, 같이 일함으로써 중생을 거두어주기도 하며, 육신을 나투어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하고, 가지가지 부사의한 빛과 깨끗한 광명을 나타내어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하며, 음성으로써 하기도 하고, 위의로써 하기도 하며, 법을 말하기도 하고, 신통변화를 나타내기도 하며, 그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성숙케 하기도 하고,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함께 있으면서 성숙케 하기도 하노라." 경에서의 말씀과 같이 관세음보살은 보살도를 실천하면서 중생을 구호하는 구원자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④ 번뇌와 정신

'존재'에서 생긴 번뇌

수행승들이여, 정신을 쓰고 있지만, 정신을 쓰지 말아야 할 것들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것들에 정신을 쓰면서 아직 생겨나지 않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번뇌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번뇌가 증가하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존재의 번뇌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존재의 번뇌가 증가하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무명의 번뇌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무명의 번뇌가 증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은 정신을 쓰고 있지만 정신을 쓰지 말아야 할 것들이다. 〈모든 번뇌의 경〉

생각에 답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한다. 더 나은 생각, 최선의 해결책이 있다고 믿고 생각을 거듭하면서도 지겨움을 느끼지 않는다. 정신 활동을 바르게 쓴다는 것은 '생각을 해보아도 이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았다' 라고 아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번뇌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번뇌가 일어났을 때 번뇌가 일어났다고 알 뿐 사라지게 할 수 없다. '생각은 환(幻)이다' 생각이 실재하는 것이 아님을 받아들이면 일체를 안 것과 같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는다. 무엇이 연결되어 계속 증가하는 것은 바른 정신에 있지 못한 것이다. 성품은 텅 비어 있다. 이 제로에서는 무엇도 늘어날 수 없다. 좋은 생각, 맞는 생각이라는 것이 '내 생각' 이다.

우리의 몸은 조건에서 태어났다. 누구도 몸의 조건을 선택할 수는 없다. 조건 지어진 의식에 따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한다. 조건은 기억과 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다양한 존재의 의식들이 교차하고 있다. 인간의 뇌를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영장류의 뇌 3가지로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때는 포유류로, 어떤 때는 파충류로 생각하지만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개 짖는 소리가 옳은가, 고양이 우는 소리가 옳은가? 옳고 그름이 아닌, 그 생각의 뿌리를 보는 자. 모든 것을 분별하는 자가 아닌 그 모든 것을 바르게 보려고 하는 자가 수행자다.

존재의 번뇌란 무엇인가? '나는 있다 없다, 나는 존재한다. 존재한 적이 없다. 나는 텅 비어 있다' 는 생각까지 전부 존재에서 생긴 번뇌다. 무명의 번뇌란 무엇인가? 무상, 고, 무아를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함에서 생긴 것이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번뇌란 무엇인가? 우리는 단지 우리로 있을 뿐인데 그렇게 있지 못하고 유혹된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이었다. 이래야 한다.' '나' 를 한정적으로 만들며 규정해 나가는 것이다. 자신을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으로 만들고,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기도하고, 바라고, 찾고, 배우며 완전하게 흡족한 '나' 가 되기 위해 자기 자신이 만든 함정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를 버리면 완전해지는데 이러한 떠남을 우리는 도태나 실패, 포기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어떤 사람' 이 아니다. 우리의 진정한 '스스로' 는 규정할 수도 물들 수도 없다. '스스로' 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없다.

너무 착하려 말고, 있는 그대로 착해야 하는 것, 없는 조건으로 착하려면 번민스럽고, 찾아 욕들을 일 없지만, 억지로 욕 안 들으려는 것도 근심이네. 인연 따라 일어나는 일에 마음 두지 않으면 대면하는 일 어렵지 않네. 일어나는 그것, 어떤 때는 가지고 있는 것 보다 크게 오고, 어떤 때는 가지고 있는 것 보다 작게 오네. 모든 것 한 생각 일어나게 하려는 허깨비 같은 안개. 만들어 놓은 조건으로 크다, 작다 해본들 지금 그 사대오온 무엇을 더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대의 지혜는 그 사량분별을 뛰어넘어 있는데, 사량 분별하는 그 자를 아직도 '나' 라고 하니 어찌 뛰어넘는 지혜를 얻겠는가. 지혜는 그 뛰어넘어버리는 그것이 지혜이니, 뛰어넘고 나면 다시 지혜를 찾지 않네. 본래 그러한 것으로 와서, 본래 그러한 것을 보라고 하는데, 본래 그러한 것을 보지 않으려 하니, 본래 그러한 것 보고 듣는 데도 알 수 없다네. 본래 그러한 것 보기만 하면, 본래 모든 것 알고 보는 자이네. 왔다는 것 어디에 있는가? 갔다는 것 어디에 있는가? 〈(사)여시아문 선원장〉

대한불교 선밀종

종도를 위한 종단 | 수행을 위한 종단 | 더불어 가는 종단

대한불교 선밀종은 종단을 이끌어 나아갈
간부스님 및 종도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옵니다.

사암등록 및 안내

▣ 제출서류
·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판 사진 3매(장삼,가사)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종단사업 참여 안내

포교를 위한 종단사업을 추진하오니
운영(지분참여)에 관심있는 분은 참여바랍니다.

▣ 전자사업(전자뜸질기)
· 국내특허 : 10-2014-0143968 (전자뜸질기)
· 국내상표출원 : 4-2014-058697-9 (전자뜸질기)

뜸의 효과를 세계최초로 전자로 대체 개발한 임맥의 단전, 중완, 신궐, 양천추, 독맥의 명문, 현추, 양관, 양신유의 뜸질



문의전화 ▶ 010-3134-8484

대한불교 선밀종 총본산 관정사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449 www.sunmiljong.or.kr 총무원 T. 053)854-0803 / F. 053)854-0804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 (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